

# 대중가요 가사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탐색: 해방이후부터 1996년까지의 가요를 대상으로

최 상 진    조 윤 동    박 정 열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람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러한 정서의 표현 수단 중 대표적인 하나가 노래를 통한 방식이다. 본 연구는 어떤 노래가 유행한다는 것은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행위 양태, 정서 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감·공유된 행위 양태나 정서 등은 사람들의 문화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가정(假定)에서 출발하였다.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가사에 사용된 어휘의 계량과 그 속에 내재된 행위 양태와 정서의 내용물 탐색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어휘 계량 결과, 시대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사용되는 주요 어휘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어휘 가운데 정서 표현에 사용된 어휘들은 주로 부정적 정서나 심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주제별 분류 결과, 사랑과 이별에 관한 노래, 삶의 애환이나 세태를 풍자한 노래, 고향/타향살이와 관련한 노래, 자연이나 인물을 예찬한 노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남녀 양자간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것들이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는 가사 속에 나타난 '부정적 귀결에 대처하는 행위 양태와 정서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 주로 수동·소극적이고 자책·체념하는 노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점차적으로 능동·적극적인 노래들이 증가하였다.

주요어: 대중가요, 한국인 정서, 문화, 내용분석

현대 산업 사회를 특징짓는 지배적인 문화현상 물론 이러한 용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대중문화를 다음의 네 가지 시  
을 지칭하기 위해 '대중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각과 입장으로 구분한다(이상희, 1983).

- 첫째,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
- 둘째, 대중사회에 생성되는 독특한 문화
- 셋째, 문화의 대중화 현상
- 넷째, 매스 미디어가 창출하여 전파하는 문화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대개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모두가 ‘대중문화’의 범주에 해당된다.

‘가요(歌謠)’ 즉, ‘노래’는 이러한 대중문화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고래(古來)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온 대표적인 향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향가(鄕歌), 고려의 고려가요(高麗歌謠)·고려속요(高麗俗謠), 조선의 시조(時調)·가사(歌辭), 소리(창), 일제시대의 창가(唱歌)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 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 즉, 유행가(流行歌)가 있었다. 이러한 유행가는 단순히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의 의미를 넘어, 당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국어학적·역사·문화적 자료가 된다. 이는 한 시대의 유행가들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유행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있겠지만, ‘대중가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수긍할 것이다. ‘대중가요’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일반 대중의 흥미를 위주로 한 노래(동아출판사 편, 1996; 한글학회 편, 1994)”를 의미한다. ‘대중’은 “한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을 말한다(동아출판사 편, 1996; 한글학회 편, 1994). 이영미(1998)는 대중가요를 “근대 이후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면서 나름의 작품적 관행을 지닌 서민들의 노래”라고 정의하였다. ‘서

민’이라는 용어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이라는 의미에서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대중가요는 근대 이후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일제시대 시기부터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전의 전통적인 판소리, 민요 등과는 달리 그 창작자와 가창자가 분명하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대항하며 창작된 대중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나(김광해, 윤여탁, 김만수, 1999),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창작과정의 세분화와 더불어 장르와 내용 등에서 광범위하게 창작·발표되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불려지고 있다. 또한 그 수용 계층도 주로 도시의 대중들을 상대로 했던 초창기와는 달리 지역적인 제약도 없을뿐더러, 그 수용 계층의 연령 폭이 10대에서부터 60-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창작과 수용의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가요는 근대 이후에 발생한 서민들의 노래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대중가요는 근대사회의 산물이다. 따라서 도시의 대중들을 그 주요 수용층으로 삼는다.

둘째, 음반매체나 방송매체 등 대중매체를 그 전달매체로 삼고 있으며, 그 창작자와 작품의 원류(originality)가 분명하다.

셋째, 대중가요는 주로 남녀간의 사랑을 비롯한 사적(私的)인 인간관계를 내용으로 주로 다루고,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작품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넷째, 대중가요는 상층 귀족이나 엘리트의 예술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향유하는 서민 문화(popular culture)에 속하며, 따라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이다(이영미, 1998).

대중가요는 노래라는 측면에서 리듬이나 멜로디 등과 같은 음악적인 측면, 그리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노랫말, 그 가사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제목 등과 같은 언어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트로트, 1970년대의 포크, 1980년대의 디스코와 락, 1990년대의 랩, 오늘날의 테크노 등은 각 시대에 주류를 이루던 대표적인 음률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미, 1995; 중앙일보, 1999. 5. 23일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류 음악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모두 한국어로 된 노랫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동일 언어의 사용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며, 그러한 공유된 문화는 사람들의 심리특성을 담지하고 있다(Berlin, 1976; Shweder, 1991; Vygotsky, 1978). 따라서 한국어로 기술된 노랫말 속에는 한국인의 공유된 문화 및 심리특성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가나 고려가요, 시조, 가사(歌辭) 등이 사료(史料)적으로 가치(價値)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대중가요도 그러한 자료(資料)로서 기능(機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노래가 대중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음률과 노랫말’, 즉 음악적·언어적인 두 가지 측면이 수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된 상태에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인 측면보다는 노래의 가사(歌詞·노랫말)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랫말은 음률에 그 의미를 실어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과 유사하다. 따라서 노랫말은 정서·마음·의식·사고·가치관·태도 등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의사소통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서 창작자와 수용자들의 공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는 사상(事狀)을 표현하는 일상 및 사회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기호이며(Saussure, 1972; 소두영,

1995에서 재인용), 모든 기호는 그 지칭하는 기호와 그와 관련된 해석내용, 그리고 그 지칭대상을 가지고 있다(Peirce, 1932; 송효섭, 1997,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그 해석내용은 기호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이며, 이는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하는 기호로 작용한다. 대중가요의 가사(歌詞)는 언어이자 기호로서 해석내용에 따른 의미를 산출하며, 노랫말을 통해 생성된 의미는 노래를 향유하는 사회구성원들과 공유된다. 이러한 공유된 의미는 결코 역사·문화적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동시에 현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소설이나 저술, TV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 것은 그 내용이 그 시기의 어떤 사회적·심리적 현상에 영합되기 때문인데(이규태, 1991), 특정 노래가 인기를 얻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한국 대중가요 가사 분석을 통해서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노랫말 속에 비춰진 사람들의 공유된 의미, 사회·심리적 현상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모든 노래가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CF의 카피처럼 사람들은 유행가에 자신의 경험이나 정서를 투영한다. 이러한 각 개인들의 투영된 경험의 공유(公有)로 인해 특정 노래가 유행하게 된다. 즉, 특정 노래가 유행한다는 것은 특정 노래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며, 이는 곧 사람들의 선호 및 애창의 행위로 나타난다. 또한 대중가요는 노래를 듣고, 부르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고, 공유된다. 따라서 그러한 노래는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의 특정행위(activity)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특정한 의미나 상징 또는 경험들이 매개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Leontiev,

1981; Ratner, 1997). 따라서 특정 노래가 유행한다는 것은 그 노래 속에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투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공유되어 있는 심리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임 자리에서 노래를 꼭 부르고, 술을 마시면 꼭 노래로 마무리하고, 누구나 애창곡(18번)은 하나쯤 있어야 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단련된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구체적 경험과 결부되는 결속력도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대중가요는 또한 서민문화로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지되는 문화이다. 대중의 경험과 관심사, 인식과 정서, 가치관 등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냄으로써 대중과의 공감대를 이루어낸다. 이는 창작자의 표현행위와 더불어 이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표현행위 즉, 창작자는 물론 수용자도 대중가요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정서를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광해 등, 1999).

자신과 심리적으로 관여된 사람이나 사건을 접할 때 자신과 구분되지 않는 현재-실존적 경험, 즉 당사자적 체험을 하게 된다(최상진, 1997a, 2000). 사람들은 노래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당사자적 체험을 하게 되며,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때 특정 노래가 유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한 가지인 대중가요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향유하는 대상체(對象體)이며, 삶의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는 문화적 집적물(集積物)이다.

지금까지 대중가요는 학문적 분석 또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 몇몇 연구자들(김광해 등, 1999; 김희정, 2000; 이영미, 1998 등)에 의해서 연구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국문학이나 평론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있어, 대중가요 속에 내재

되어 있는 문화적·심리적 측면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심리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 문화권의 심리적 특성은 그 문화권에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형성되며, 그러한 방식의 형성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최상진, 1999). 해방이후부터 1996년까지의 대중가요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심리적 특성 가운데 주된 정서가 무엇이며, 어떤 양상을 띄고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그럴만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어휘의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어떤 행위나 정서와 관련해 특정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와 관련한 심리적 경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이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Berlin, 1976; Shweder, 1991; Vygotsky, 1978).

다음으로 노래가 담고 있는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고려가요를 비롯한 문학작품 및 민요 속에 나타난 주된 주제(主題)가 '사랑과 별리(別離)'이며, 그 주된 정서가 '정한(情恨)'(양태순, 1997; 김열규, 1975, 1980)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가요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주제 및 이와 관련한 주된 정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가요나 민요, 대중가요가 모두 서민들의 노래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대중가요의 주된 주제와 정서 또한 고려가요의 주제와 정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문화가 바뀐다. 문화의 변화는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Leontiev, 1981; Vygotsky, 1978). 따라서 대중가요 가사에 사용된 어휘의 양적인 측면이나 노래 가사에 담겨진 주제 및 내용 역시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며, 이는 심리적·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한 시대별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연구 방법

###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가요 반세기』(아름 출판사, 1996)에 실려 있는 749곡의 대중가요로, 해방 이후부터 1996년도 사이에 유행했던 노래들이다. 이 책은 대중가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출판물 중에서 자료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대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연구의 기본 자료로 삼았다. 이들 749곡의 가사 중 1절만을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시대별 곡목 수(數)는 다음과 같다.

표 1. 각 시대별 곡목수

시 대	50년 이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1990 -1996	계
곡 수	75	135	183	134	114	108	749

### 자료 분석 방법

#### 어휘양상

먼저 통계 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749곡의 노래 가사의 1절을 한글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우리말의 교착어<sup>1)</sup>적 특성상 조사가 갖는 의미가(價)가 크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전

1) 교착어(膠着語): 언어의 형태상 유형의 한가지. 어떤 말에 독립성이 없는 조사나 접사(接辭) 따위를 붙여, 그 기능에 의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한글학회 편, 1994).

달의 최소단위가 단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어절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을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뢰하여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각 어절단위의 모든 어휘들을 빈도순 및 가나다순으로 표시하여 준다. 또한 동일 어휘군(語彙群)으로 묶었을 때 자동적으로 계량수(計量數)를 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초 어휘량(사용빈도)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기본형이 동일한 어휘들은 하나로 통합하였다. 예를 들어, '가니, 가서, 가는' 등의 '가다(go)'라는 단어의 변형들은 그 기본형인 '가다'로 묶어서 계량하였다. 대표 어휘로 묶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합성어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였다.  
예) 강바람, 개울가, 눈보라 등
- 2) 자체로 의미가(意味價)를 갖지 못하는, 조사(助辭)는 계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예) 용언(동사, 형용사)의 어미(語尾)는 모두 계량에서 제외되었으며, 기본형으로 바꾸어 계량하였다.  
예) '가는(去)' ⇒ '가다'
- 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다의어(多義語) 등은 그 뜻이 구별될 수 있도록 단어마다 별도의 설명을 덧붙였다. 그 의미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 품사를 표시하거나 한자, 영문으로 뜻을 부여하였다.  
예) '그(대)', '그(관)': '감다(눈을-)', '감다(줄을-)': '가다(去)', '가다(세월이-)' 보다(see), 길(road) 등
- 4) 용언의 어미를 기본형으로 바꾸어 계량함에 있어서,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편, 1994)에 실려 있는 기본형을 따랐다.
- 5) 도입부나 후렴구, 감탄사 등의 반복적인 어구는 모두 1회로 계량하였다.

예) 차차차, 쿵따리샤바라 등

7) 동일 외래어가 서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표기되었을 경우, 이를 대표형 한 개로 통일하여 계량하였다.

8) '무엇 무엇하다'같은 어휘의 변화형은 기본형<-하다>로 계량하였으나, 어간(語幹) 자체로 <-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는 어간만 계량하였다.

예) 미워한 ⇒ 미워하다. 외면(外面)한 ⇒ 외면

앞서 언급한 기준 가운데 1) - 4)에 해당하는 기준은 기존의 일제시대 대중가요를 분석하여 계량한 선행연구(김광해, 윤여탁, 김만수, 1999)의 기준을 따랐으며, 6) - 8)의 기준은 본 연구에서 추가한 것이다. 단, 기준 2)에서 선행연구는 조사(助詞) '이다'를 계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계량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덧붙이는 설명에 사용된 품사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 \* 지관: 지시관형사    \* 조동: 보조 동사
- \* 지대: 지시대명사    \* 자동: 자동사
- \* 타동: 타동사        \* 의명: 의존명사
- \* 부: 부사            \* 명: 명사
- \* 조형: 보조 형용사

### 주제별 양상 및 행위양태/정서상태 분석

주제별 양상과 행위양태/정서상태의 분석은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대학원생 2명과 연구자들이 사전에 합의된 분류 범주에 따라 각 곡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류를 실시한 후,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재분류하였다. 1차 분류 과정에서의 연구자간에 일치도는 주제별 양상 .88(657/749), 행위양태(수동/소극 對 능동/적극) .81(212/263), 그리고 정서상태(원망/질책 對 자책/채념)가 .87(228/263)이었다.

## 결과 및 해석

### 어휘 양상

해방 이후부터 1996년도까지의 749곡에 대한 최초 어절 단위 분석 결과 총 9728개의 어휘가 산출되었고, 이를 다시 동일 어휘군(語彙群)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총 3391개의 단어가 산출되었다. 이들 단어의 총 사용빈도(연어휘)는 23567회였다.

전체 어휘를 계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각 시대별 노래들에 대한 가사 어휘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단어수(單語數)와 총 사용빈도(연어휘)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시대별 어휘 산출 결과

시 대	어휘양상 (單語數)	단어수 (單語數)	총사용빈도 (總使用頻度)
해방이후 - 1960년 이전		1659	4902
1960년대		1376	4975
1970년대		1086	4214
1980년대		1023	4379
1990 - 1996년까지		1340	5248

감탄사나 후렴구들을 모두 1회로 계량했기 때문에, 시대별로 계량했을 경우 중복되어, 단어수(單語數)와 총 사용빈도에서 전체를 계량했을 경우와 각 시대별 결과를 합한 결과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노래가 108곡으로 구분된 시대 중에서 그 곡목수가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단어수와 어휘 사용 빈도에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대중가요 가사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졌

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어휘 계량 결과에서 빈도순으로 상위 200개의 단어를 살펴보면, 전체 어휘 중 상위 200단어의 사용빈도가 13854회로 전체 사용량의 58.79%(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차지하였다(부록 1 참조).

일제 강점기 가요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사용빈도 상위 200개의 단어가 전체 사용 빈도의 50.21%로 나타났다(김광해, 윤여탁, 김만수, 1999). 비록 일제 강점기 연구에서 계량한 조사(助詞) '-이다'의 비율 3.41%를 제하고 보더라도 46.80%로, 한국 대중가요에서 사용된 단어 가운데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어휘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해방 이전)와 해방 이후부터 1996년까지의 가요에서 사용된 200개의 상위빈도 단어 가운데 129개의 단어(부록 1의 굵은 글씨)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단어들이 바로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고빈도어(高頻度語)라고 할 수 있다(부록 1 참조).

특정 언어를 빈번히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와 관련된 사상(事象)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파생되는 의미(意味) 역시 많아지게 되며, 그에 따른 해석내용 역시 증가하게 된다(Peirce, 1932; 송효섭, 1997, 1999에서 재인용). 한국 가요의 노랫말에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들이 있다는 것은 그 어휘들과 관련된 의미 및 해석내용이 많으며, 유행하는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들이 한국인의 심리적 삶(psychological life)에 있어서 보편-현재-중요한 관심 주제들이며, 심리적 대상(표상) 주제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어휘들을 살펴보면, '사랑, 마음, 눈물, 떠남, 이별, 그리움, 기다림, 추억, 인생, 청춘' 등인데, 이들이 바로 대중가요에서 주로 노래하고자 하는 대상들이다. 이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별 분류 결과인 표 5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노래는 자신의 심정이나 마음을 노래로 표출하고, 이를 청자(聽者)들이 공감하는 양식을 취한다. 노래가사의 '나'는 곧 청자(聽者)이며,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마음 상태는 곧 듣는 사람의 마음이 된다. 따라서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서는 곧 듣는 사람의 정서이자, 마음상태가 된다.

상위 200 단어 중에서, 정서와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상위 200단어에서 나타난 정서관련 어휘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어휘보다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어휘들이 그 어휘의 수(數)나 어휘 사용 횟수면에서 월등히 많다. 이는 대중가요 가사에서 표현되는 내용이 정적 귀결보다는 부정 귀결과 관련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정서관련 어휘(상위 200단어를 대상으로)

긍정적 정서 관련 어휘		부정적 정서 관련 어휘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행복	54	울다	269
좋다	50	눈물	139
웃다	50	외롭다	56
아름답다	32	슬픔	46
곱다	22	울리다	42
		슬프다	38
		싫다	37
		아프다	34
		몹다	31
		서럽다	26
		쓸쓸하다	24
		괴롭다	22
계	208(0.88%)	계	764(3.24%)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정적인 귀결에 대한 노래 보다는 깨어진 사랑, 떠나간 님, 돌아선 당신, 떠나 온 고향, 못 다한 효도 등과 같은 성공적이지 못한, 원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은 부적인 결과로 인한 충족되지 않은, 흡족하지 않은 마음상태에 관한 노래들에 더 잘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래 주제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과 관련된 그리움이나 회한이라는 결과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표 5 참조).

정서관련 어휘와 유사하게, 심정을 표현하는 어휘로 형용사를 들 수 있다. 상위 200 단어 가운데, <일제강점기 가요>와 <해방이후부터 1996년까지의 가요>에서 사용된 형용사 가운데, 심정 표현 형용사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그렵다, 외롭다, 서럽다’의 심정 표현 어휘는 해방이전 노래와 해방 이후의 노래가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운 심정·외로운 심정·서러운 심정’을 담고 있는 노래에 더 잘 공감하기 때문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심정 표현 형용사(상위 200단어를 대상으로)

공통어(共通語)		그렵다, 외롭다, 서럽다
차이어 (差異語)	일제강점기	아속하다
	해방이후 -1996년	슬프다, 아프다, 쓸쓸하다, 괴롭다

그러나, 해방 이전에는 위의 세 어휘 이외에 ‘아속하다’라는 어휘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방 이후 노래 가사에서는 ‘슬프다, 아프다, 쓸쓸하다, 괴롭다’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속하다’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상-원망적(對象-怨望的) 심정(心情)’이라고 한다면, ‘슬프다, 아프다, 쓸쓸하다, 괴롭다’ 등은 자기 자신의 심정 상태를 기술하는 ‘자기-준거적(自己-準據的) 심정(心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서는 곧 듣는 사람인 ‘나’의 정서와 일맥상통하며, 노래가 유행한다는 것은 그러한 노래의 정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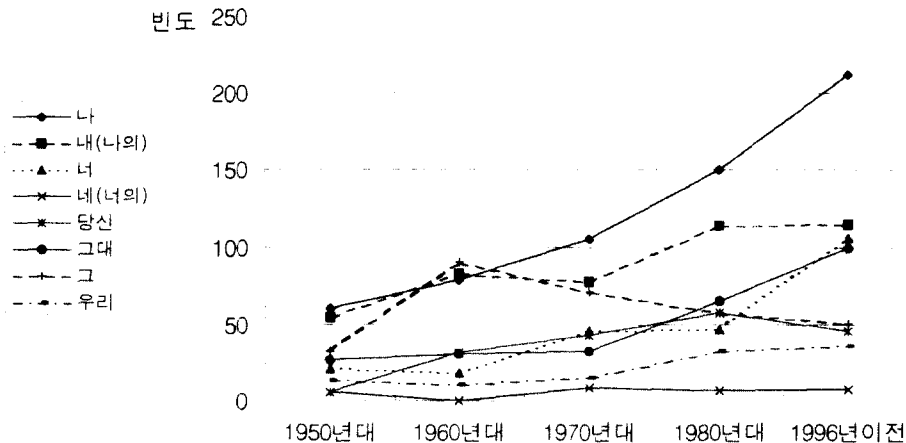


그림 1. 인칭대명사 시대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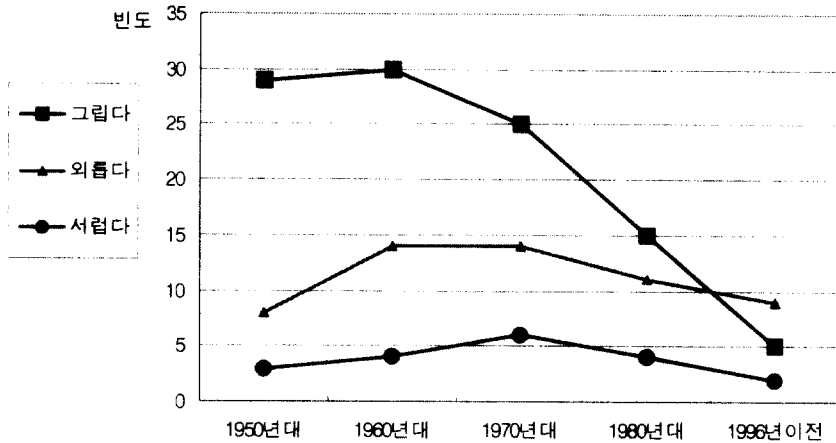


그림 2. 심정 형용사 시대별 변화추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은 인칭대명사를 10년 단위의 시대별로 살펴 본 결과이다.

각 시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1인칭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노래가 108곡으로 다른 시대와 비교해 그 곡목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신(自身)을 표현하는 단어인 ‘나’와 ‘내’가 월등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 들어 이러한 자기-준거적 성향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는 심정 표현 형용사 가운데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인 ‘그립다, 외롭다, 서럽다’를 각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그림 2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외롭다’와 ‘서럽다’라는 어휘가 시대별 곡목수에 따라 그 사용빈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1970-80년대를 거쳐 1990년대로 가면서 ‘그립다’라는 어휘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립다’는 어휘의 사용 감소는 그와 관련된 언어 행위나 의미가 그만큼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그만큼 ‘그리움’이라는 정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에 따라 점차 ‘그리움’의 정서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를 ‘스피드 시대’ 또는 ‘인스턴트 시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 돌아볼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시대적 정서의 반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리움’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감소하는 것보다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자기-준거적 심정 형용사의 등장, 개인을 나타내는 1인칭 형용사의 증가, 그리움 정서의 감소 등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중가요 가사의 주요 내용이 각 개인과 관련된 것들로 전환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주제별 분류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후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과 이별’에 관한 것이어서 상위 빈도에서 등장하는 주요 행위 동사들도 ‘가다’, ‘오다’, ‘울다’, ‘울리다’, ‘떠나가다’, ‘사랑하다’, ‘잇다’, ‘만나다’, ‘기다리다’, ‘헤어지다’ 등과 같이 이와 관련한 어휘들이

많았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노래들이 편중되어 있어, 각각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특징적 어휘라고 하기에는 그 대표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가요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작다'라는 형용사를 들 수 있다. '작다'라는 어휘는 시대별로 봤을 때, 1960년대까지의 노래에서도 등장하지 않지만, 1970년대 노래에서부터 '작은 집', '작은 별', '작은 미소', '작은 날개', '작은 사랑' 등의 수식어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는 산업화로 인한 계층구조 변화가 이루어져,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소시민 의식(小市民意識)'이 새로운 가치로 대두된 시기이다(홍두승, 안치민, 1997).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미소'나 '사랑' 등의 추상적인 개념에까지 도입되어 대중가요 가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제별 양상

본 연구의 목적은 본 고의 제목이 말하는 바와 같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녹아있는 한국인의 정서를 탐색해 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사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를 계량화하였다. 그러나 계량화를 위해서는 각 노래들을 개별 어휘들로 나누어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 각각의 노래가 담고있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다음절에서는 노래 속에 나타난 시적(詩的) 자아의 행위 양태 및 정서 표출 상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해방이후부터 1996년도까지>의 노래 749곡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주제의 범주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연구」(김광해, 윤여탁, 김

만수, 1999)에서 사용된 기준을 준거로 하였으며,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미 헤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는 '청춘이나 옛것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는 곡들이 많아 <그리움>이라는 범주를 본 연구에서 추가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749곡의 노래 중에서, 사적(私的) 인간관계인 '사랑'과 '이별', '그리움'을 주제로 한 노래가 496곡으로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행가의 주제별 분류에서도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가 전체의 33.9%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김광해, 윤여탁, 김만수, 1999). 이런 경향성이 정치·사회적인 규제의 영향에 의한 것일 수 있겠지만, 고려가요나 가사(歌辭)의 주제가 '사랑과 별리(別離)'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중가요를 통해 노래하는 주요 테마가 '사랑과 이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들에 대해서는 이후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삶의 애환을 다루거나 세태를 풍자>한 노래들은 66곡으로 전체의 8.81%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신정권과 군사정권으로 특징지어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공연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검열의 강화를 통한 비판의식의 제거와 정부주도의 문화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이다(유문무, 1997). 이런 강력한 규제로 인해 비판의식을 전제로 하는 주제들의 노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판과 저항 의식을 모티브로 하는 '민중가요'라는 새로운 범주의 노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모두 금지곡류에 해당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삶의 애환/세태풍자>와 관련한 노래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중가요 내에서 <삶의 애환/세태풍자>를 주제로 한 노래들은 <삶의 애환>

표 5. 시대별 - 주제별 곡목수

주제	연대	1950년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1996	계
사 랑	회한 원망 아픔	2	18	36	33	41	33	163
	기쁨 즐거움		16	18	13	11	20	78
이 별		10	13	25	19	18	15	100
그리움	옛사랑 떠난남	15	12	47	26	20	6	126
	옛것 젊음	3	10	4	6	2	4	29
소 계		30 (40%)	69 (51.11%)	130 (71.04%)	97 (72.39%)	92 (80.7%)	78 (72.22%)	496 (66.22%)
삶(삶의 애환/ 세대풍자)		12	14	16	4	6	14	66
고향/타향살이		15	13	9	7		1	45
예 찬 (청춘/인물/꽃)		6	18	9				33
육 친 (어머니/형제)		2	4	5	4		1	16
자연/전원생활		2	2	4	3	2		13
조 국 애		2	1	1		1		5
기 타		6	14	9	19	12	15	75
전 체		75	135	183	134	114	108	749

을 다루고 있는 것과 <세대를 풍자>하고 있는 노래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 1950-60년대는 「전우야 잘 있거라」, 「향기 품은 군사우편」 등과 같은 한국전쟁에 대한 노래들이나, 「월급봉투」 등과 같이 한국전쟁 이후 피폐해진 경제 상황으로 인한 빈곤으로 인한 삶의 애환을 다룬 노래들이 대부분인 반면,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상은 요지경」,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등처럼 직접적으로 세대를 풍자하거나 변화하는 세대를 묘사하는 노래

들이 대부분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대중가요 가운데 <고향/타향살이>를 주제로 한 노래가 분석대상 437곡 중 71곡으로 16.2%를 차지하였다(김광해, 윤여탁, 김만수, 1999).

본 연구에서는 전체 749곡 중 45곡으로 약 6%에 지나지 않지만,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특징을 반영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은기수, 1997: p. 83)

이,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박경애, 1997: p. 30)로 <고향/타향살이>에 관한 노래들이 유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절 때만 되면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할만큼, 몇 시간이나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향>과 관련된 노래가 대중가요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유일한데, 이 노래에 묘사되어 있는 고향의 이미지는 도외 지역 출신자들의 고향 표상 이미지에 대한 연구 결과(최상진, 김효창, 박정열, 조운동, 2000)와 유사하다. 이는 이미 고향 이탈자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고향과 관련된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표상(表象)되어 있으며, 1960-70년대의 고향 이탈 당사자들의 <고향> 관련 노래에 대한 당사자적 경험보다는 그 공감 정도가 낮아 유행가의 범주에서 점차 사라져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국애’를 주제로 한 노래도 일제 시대 때는 15곡(3.4%)이었으나, 해방 이후부터 1996년까지는 5곡(0.67%)에 불과하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던 일제시대에는 대중가요를 통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고무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김광해, 윤여탁, 김만수, 1999), 해방이후 이러한 주제의 노래들은 정부 주도의 ‘건전가요’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고, 대중가요 범주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이영미, 1998).

**부정적 귀결에 대처하는 행위 양태 및 정서 상태: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를 중심으로**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분석대상 749곡 가운데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에 따른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 496곡(66.22%)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

인 유행가 가사 분석을 위해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는 155곡을 제외한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는 노래를 대상으로, 노래 속에 나타난 시적(詩的) 자아의 행위 양태 및 정서 표출 상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들은 대부분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노래이거나 현재 이별하고 있는 상황의 노래들 또는 사랑에 관한 나뉠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노래들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부정적 귀결’을 다루고 있는 노래들이다(표 3 참고). 따라서 선정된 노래는 크게 부정적 귀결에 대처하는 시적 자아의 행위 양태에 따른 행동적 측면과 부정적 귀결로 인해 유발된 정서를 표출하는 정서적인 측면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sup>2)</sup>.

**행동적 측면: 수동/소극 對 능동/적극**

과거 또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행위 양태 측면에서, 수동/소극과 적극/능동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수동/소극은 과거 또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려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passive acceptance of reality)을 의미하며, 적극/능동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현실을 바꾸기 위한 개입 행동을 취하는 것(agentive reality control action)을 의미한다.

**정서적 측면: 원망/질책 對 자책/체념**

그런 상황에서 유발된 감정 상태가 타인을 원망

2) ‘사랑의 기쁨/즐거움’과 관련된 주제의 노래들은 ‘긍정적 귀결’을 다루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분석은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들 중에서 ‘사랑의 기쁨/즐거움’ 그리고 ‘그리움’과 관련된 주제의 노래들을 제외한 263곡을 대상으로 각 시대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怨望/질책(叱責)하고 있는가 혹은 스스로 자책(自責)/체념(諦念)하는가의 정서적 측면에 따라 분류하였다.

263곡을 분류한 결과, 행위 양태 측면과 정서 상태 측면 중 어느 한 측면만 나타난 노래들이 있는 반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드러나 있는 노래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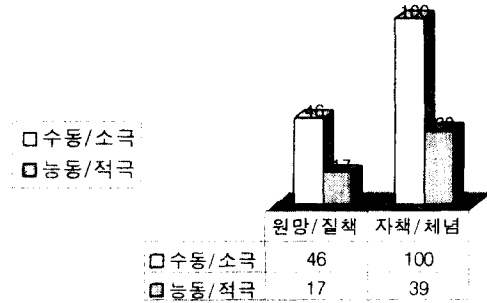


그림 3. 가사 내용에 따른 분류 결과

사랑하는 마음은 사월이지만/  
 사랑할 때 마음은 꽃이 피지만/  
 이별하는 마음은 찬바람 불어/  
 이별할 때 마음은 겨울이라네(...후략)  
 (사랑과 계절, 정미조 노래)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중략...)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그 쓸쓸함에 대하여, 양희은 노래)

위의 노래처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기슬을 하는 노래나 '사랑과 이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노래도 있어 분류하기 어려운 노래 15곡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 양태 측면만 나타난 노래는 <수동적/소극적> 9곡, <능동적/적극적> 23곡이었으며, 정서적 측면만 나타난 노래는 <원망/질책> 6곡, <자책/체념> 8곡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래들은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드러나 있었으며, 그러한 노래는 202곡으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동적/소극적>, <자책/체념>을 담고 있는 노래가 146곡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는 대중가요의 대부분이 수동적/소극적 행위 양태와 자책/체념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고 경험하는 행위 양식과 정서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부정적 귀결에 대처하는 행위 양태와 표출된 정서에 따라 분류된 노래들의 대표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범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부정적 귀결에 대처하는 범주 유형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원망/질책	자책/체념
	소극/수동	"당신은 너무 합니다"
적극/능동	"미워 미워, 가진 어딜가"	"갈테면 가. 나도 내 갈길 갈거야"

**수동적/소극적 - 원망/질책("당신은 너무합니다"형) :** 과거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행위 양태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질책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중략...

떠날 땐 말없이 떠나주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김수희 노래)

생략...너무합니다/ 사랑한다할 땐 언제고/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오 아 미운 사람이/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조미미 노래)

위의 노래에서처럼, 떠나가는 사랑에 대해 ‘말없이 가세요’ 등과 같이 수동적이고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 양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너무합니다’, ‘미운 사람’ 등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질책·미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수동적/소극적 - 자책/체념(“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형):** 노래 속에 나타난 행위 양태가 수동적·소극적인 동시에, 자신을 탓하거나 체념하는 경우이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중략...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후략

(갈무리, 나훈아 노래)

지금 그대는 어디쯤 오는지/  
아직 와야할 길이 더 많은지/  
잠시 다녀오겠다던 발걸음/  
오시는 길에 해매이다...중략...  
서글픈 사랑 안녕/ 지친 세월 안고/  
홀로 건넌 나의 기다림/ 모두 부질없으니...후략  
(길, 조관우 노래)

이미 헤어진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이러는’ 자신에 대한 질책과 자신의 ‘기다림에 대한 부질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능동적/적극적 - 원망/질책(“미워 미워, 가지마” 형):** 노래 속에 나타난 행위양태가 능동적·적극적이며, 상대에 대한 원망·질책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줄 순 없나요...중략...  
당신이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왜 열지 않는 거야/  
뜨거운 가슴으로 꽃을 피우듯 사랑 다시 할 순 없는 거야/  
왜 돌아섰오 왜 돌아섰오 내 사랑에 돌을 던져 놓고

(내 사랑에 돌을 던져 놓고, 이광조 노래)

나뭇잎이 떨어져 바람결에 뿔뿔고/  
내 마음도 갈 곳 잃어 낙엽 따라 헤메네/  
있으라는 그 한마디 남기고 가버린/  
사랑했던 그 사람 미워 미워 미워/  
있으라면 잊지요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것 못 잊을까 봐

(미워 미워 미워, 조용필 노래)

노래 속의 시적 자아는 ‘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야’하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따지거나 ‘잇는다’는 적극적인 행위 양태를 보임과 동시에 ‘왜 돌아섰오’, ‘미워 미워 미워’와 같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질책·미움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능동적/적극적 - 자책/체념(“갈데면 가” 형):** 노래 속에 드러난 행위양태가 능동적·적극적인 반면, 드러난 감정은 자책·체념의 상태인 경우이다.

표 7. 가사 내용에 따른 각 시대별 분류 결과

	해방이후-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1996	
	원망/질책	자책/체념	원망/질책	자책/체념	원망/질책	자책/체념	원망/질책	자책/체념	원망/질책	자책/체념
수동/소극	10	20	12	31	7	17	11	22	6	10
능동/적극			1	7	6	11	6	8	11	13

다. 이 경우 표출된 정서는 체념(諦念)의 정서인데, 이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념(斷念)에 가까운 것으로 ‘갈테면 가라지’의 심정에 가깝다.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중략...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중략...  
 지금 나는 가야 하는데!...중략...  
 어차피 그대 마음에 한동안 머물다 떠나가  
 는 데/  
 돌이키지마 돌이키지마/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돌이키지마, 이은하 노래)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돌아서서 울지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꺼야!...중략...  
 잊자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후략  
 (다함께 차차차, 설운도 노래)

‘어차피 무엇 무엇한...’이나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등의 체념적(단념적)·수용적인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나의 길을 가야 한다’ 또는 ‘내일은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와 같은 적극적·희망적

인 행위 양태를 보이고 있다. 표 7은 이러한 노래들을 시대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수동적·자책적인 노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960년대부터 적극적/능동적인 행동 경향성의 노래가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는 분석대상 곡목수가 108곡으로 제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극적인 행동 경향을 보이는 노래가 24곡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심정표현 형용사(표 4 참조) 및 시대별 변화 추이 결과(그림 2 참조), 인칭대명사 사용빈도 변화(그림 1 참조)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주체화 경향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에 의한 것이라 해석된다.

1990년대에는 ‘X 세대’, ‘신세대’, ‘N 세대’ 등의 특정 계층을 가리키는 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체가 되며, 궁극적으로 자기(自己)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 주체로서의 나(agentive self)’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주체화 경향은 20대의 직업선택시 우선 고려사항이 개인의 적성이라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공보처, 1996: p.130)

‘자기(self)’는 개인의 성격, 정서, 행동, 의지 등과 같은 심리적 제 현상에 광범위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기 실체이며 (Danziger, 1997), 동시에 나 자신이 이성의 인식을

통해 찾아내고 논리의 언어로 체계화해야 하는 대상체(對象體)이기도 하다(Harre & Gillett, 1994). 이는 다분히 서구적인 개념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나'에 대한 구성(構成)이 변화하는 관계-맥락적 마음관(Relational-Contextual Mind)을 갖는 한국인의 '자기(self)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 그러나 1990년대의 '나'는 행위 주체로서의 '나'를 강조하는 서구적 자기(self)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떤 노래가 유행한다는 것, 즉 사람들에게 널리 불리고 있다는 것은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행위 양태, 정서 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共感)·공유(共有)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감·공유된 행위 양태나 정서 등은 사람들의 문화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가정(假定)에서 출발하였다.

대중가요 가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가사에 사용된 어휘의 계량과 그 속에 내재된 행위 양태와 정서의 내용물 탐색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어휘 계량 결과, 시대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사용되는 주요 어휘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부록 참조). 주요 어휘 가운데 정서 표현에 사용된 어휘들은 주로 부정적 정서나 심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노래들이 부정적 귀결 즉 떠나간 님(대상), 이루지 못한 사랑(상태) 등의 미완성 또는 성공적이지 못한 대상이나 상태로 인해 발생된 아픔, 회한, 슬픔, 후회, 아쉬움, 미련 등의 속마음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심정논리에 근거한 토로 곡조를 띄게 되는데(최상진, 1993, 2000; 최상진, 손영미,

1999; 최상진, 유승엽, 1996; Choi, 1994; Choi & Kim, 1997), 노래는 이러한 심정을 토로하는 기능을 한다. 부정적 귀결로 인한 속마음, 즉 심정(心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어휘들은 주로 '그립다', '외롭다', '서럽다' 등이었는데, 해방이전의 가요와 비교해 볼 때, 그 표현 어휘들이 다양해졌다. 해방이전은 주로 '야속하다'와 같은 대상 원망적 심정을 표현하는 어휘인 반면, 해방이후 가요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심정표현 형용사들은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등의 자기-준거적 심정을 표현하는 어휘들이었다.

주제별 분류 결과, 사랑과 이별에 관한 노래, 삶의 애환이나 세태를 풍자한 노래, 고향/타향살이와 관련한 노래, 자연이나 인물을 예찬한 노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주제와 관련한 노래의 곡목수와 그 내용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중가요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사적 인간관계 중에서도 '남녀 양자간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것들이었다. 현재까지 전해져 온 고려가요의 대다수도 남녀의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장덕순, 1995)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사랑과 이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보편적 삶의 주제이자 경험이며, 따라서 그와 관련된 공유 및 공감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의 정서 탐색 분석 대상 263곡 가운데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노래들은 163곡이었는데, 이 가운데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노래 15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루고 있는 가사 속에 나타난 '부정적 귀결에 대처하는 행위 양태와 정서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 주로 수동적·소극적이고 자책·체념하는 노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점차적으로 능동적·적극적인 노래들이 증가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갈테면 가라’는 식의 단념(斷念)의 정서 표출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수동적·소극적이라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 ‘아무개에게 차이는’ 상황에서 그냥 ‘차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차이는’ 상황에서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스스로 탓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체념하는 정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규태(1995)는 한국 고대 소설의 주인공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로 ‘약자(弱者) 자처(自處)와 약자 공감’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약자 자처와 약자 공감은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였다’, ‘당했다’는 ‘억울(抑鬱)의 심리 상태로, ‘억울하다’는 심리적 상태는 ‘화(火)’의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자신의 심리 내적으로 참아 내며 해소하는 상태가 한(恨)의 정서이다(최상진, 1997b).

맺힌 한(恨)은 ‘풀이’의 과정을 통해서 해소한다(김열규, 1975, 최봉영, 1997, 최상진, 1997b). ‘터놓고 얘기해서 풀어보자’, ‘한 잔 술에 풀어 버리자’, ‘살풀이, 액풀이, 한풀이, 화풀이, 분풀이, 문제풀이, 심심풀이, 뒷풀이, 앞풀이 등의 일상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풀이’의 과정은 한국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맺힌 것을 풀어버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정(情)이 되살아나고, 삶의 흥이 회복되기 때문이다(김열규, 1975). 정의 회복은 곧 다친 마음의 회복이다(최상진, 1999). 따라서 노래는 ‘사랑과 이별’을 통해서 겪게 되는 보편적 경험 정서, 표출하지 못 하고 내재적으로 쌓여있는 한(恨)의 속마음을 경험을 걸고 표출함으로써, ‘풀이’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람들은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서와 자신의 경험을 결부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속마음 경험을 간접적으로 ‘풀이’하는 당사자적 체험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풀이’ 과

정의 당사자적 체험과 그러한 체험의 사회적 공유로 인해 특정 노래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유행하는 노래에 사회적 공유물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래는 청각적 자극과 의미의 결합이라는 형태를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중가요의 음률적 측면은 배제한 채, 언어적 측면만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음률적 측면과 동시에 전달되는 가요의 특성상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어휘를 계량하므로 인해서 각각의 노래가 담고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한 내용분석과 시적 자아의 행위 양태 및 정서 표출 상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범주별 분류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연구자가 주로 듣고, 즐겨 부르던 익숙한 음률이나 노래들에 대한 선호도가 개입됐을 가능성과 그러한 노래들과 결부된 연구자의 경험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노래가 각 개인과 정서적, 감성적 합치를 통한 공감을 통해 유행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개별 노래가 담고 있는 고유한 정서(情緒價)와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내용을 찾아 내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부터 1996년도>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람이 변하면 문화도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사람들의 심리도 변한다(Leontiev, 1981; Vygotsky, 1978). 표 7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차적으로 ‘행위 주체로서의 나’를 강조하는 노래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결과를 비롯해,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인한 음악 파일의 공유와 이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N 세대(Tapscott, 1997)의 등장, 98년 IMF 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1996년도 이후의 노래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문적 대상으로부터 도외시되었던 대중문화의 한 하위 범주인 대중가요를 학문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점과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실제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에 비추어 조망해 보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연구 또는 기타 인접학문 연구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공보처 (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요약·해설 편. 요약여론조사 보고서.
- 김광해, 윤여탁, 김만수 (1999). 일제강점기 대중가요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김열규 (1975). 恨脈怨流. 서울: 주우.
- 김열규 (1980). 怨恨, 그 질은 안개. 서울: 범문출판사.
- 김희정 (2000). 해방이후의 한일 유행가 어휘분석. 일본어연구회 월례발표회.
- 동아출판사 (1996 편). 동아 국어 메이트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박경애 (1997). 인구변동과 사회변동. 홍두승 편. 한국사회 50년: 사회변동과 재구조화 (pp. 1-4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소두영 (1995). 문화기호학.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송효섭 (1997). 문화기호학. 서울: 민음사.
- 송효섭 (1999). 설화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 아름출판사 (1996 편). 가요반세기. 서울: 아름출판사.
- 양태순 (1997). 고려가요의 음악적 연구. 서울: 이화문화사.
- 유문무 (1997). 자본주의와 대중문화. 임희섭과 박길성 (편). 오늘의 한국사회 (pp. 83-105). 서울: 나남.
- 은기수 (1997). 한국인구의 변동. 한국사회사학회 (편). 한국현대사와 사회변동 (pp. 76-104).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규태 (1991). 한국인의 의식구조 4: 한국인의 멋의 뿌리는? 서울: 신원문화사.
- 이규태 (1995). 한국인의 의식구조 2: 한국인의 동질성이란? 서울: 신원문화사.
- 이영미 (1995). 서태지와 꽃다지. 서울: 한울.
- 이영미 (1998). 대중가요사. 서울: 시공사.
- 이상희 (1983). TV방송과 대중문화. 서울: 전예원.
- 장덕순 (1995).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중앙일보 (1999. 5. 23). (20세기의 얼굴) 한국 대중가요의 흐름.
- 최봉영 (1997). 한국 문화의 성격. 서울: 세계절.
- 최상진 (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심포지움, 5-21.
- 최상진 (1997a). 당사자심리학과 제 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발표논문집, 131-143.
- 최상진 (1997b).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1999). 한국인의 마음, 최상진 외 (편), 동양심리학 (pp.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에 대한 문화심리적 조명.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초록집, 7-12.

- 최상진, 김효창, 박정열, 조운동 (2000). 한국인의 고향 표상.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초록집, 78-79.
- 최상진, 손영미 (1999). 심정적 대화 상황 분석을 통한 심정 심리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초록집, 13-16.
- 최상진, 유승엽 (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7-388.
- 홍두승, 안치민 (1997). 산업화와 계층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편). 한국현대사와 사회변동 (pp.25-53).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한글학회 (1994 편).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 Berlin, I. (1976). *Vico and Herder: Two sides in the history of ideas*. NY: Viking.
- Choi, S. C. (1994). Shim jung psychology: The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Psychologies: Indigenous,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sian Workshop in Korea*.
- Choi, S. C. & Kim, C. W. (1997). "Shim-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Paper presented at the Berlin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oretical Psychology, 27 April - 2 May 1997*.
- Danziger, K. (1997). The historical formation of selves. In R. D. Ashmore, & L. Jussim (Eds.), *Self and identity: Fundamental issues* (pp.137-15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pscott, D. (1997).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McGraw-Hill.
-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Sage.
- Leontiev, A. N. (1981). The problem of activity in psychology. In J. V. Wertch (Ed.), *The concept of activity in Soviet psychology* (pp.37-71). NY: Sharpe.
- Ratner, C. (1997). *Cultural psychology and qualitative methodolog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Y: Plenum.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An Investigation of Korean's Affection Reflected in Popular Song's Lyrics

Sang-Chin Choi Yoon-Dong Cho Cheong-Yeul Park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Korean's affection reflected in Korean popular song's lyrics. The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749 Korean pop songs from 1946 to 1996. There is two implied questions on this study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most frequent vocabulary used in Korean pop songs lyrics?' and 'what is the main theme of Korean pop songs?' Second, does it show any distinctive feature as the times are changing?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first, the frequency of each word used in Korean pop song's lyrics was computed and then the theme of those song was classified and categorized. And contents analysis by behavioral and affectional type was administered on main theme. The finding showed that there were high frequent vocabularies in Korean pop song's lyrics and 'the love and separation between man and woman' was the main theme of Korean pop songs. Negative affection related words were found more frequently than positive affection related words. Negative affection was caused by unwanted, unsuccessful, unfinished and uncompleted consequence like a separation or parting. The marked behavioral and affectional type was 'secondary control or passive acceptance of reality' type and self-reproaching affection. But, as the changing of the times, it appeared that primary control and reproaching affection type was increased.

*Key Word: Korean's affection, pop song, contents analysis*

1차 원고 접수: 2001년 2월 2일

수정 원고 접수: 2001년 5월 15일

최종 게재 결정: 2001년 5월 31일

부 록 I

해방이후부터 1996년도까지와 일제강점기의 유행가 가사 계량 결과비교(상위200위)

순위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 1996년		
	단 어	빈 도	누적사용률(%)	단 어	빈 도	누적사용률(%)
1	-이-	951	3.41	나	607	2.58
2	가다(去)	643	5.72	내(나의)	444	4.46
3	올다	441	7.30	가다(去)	408	6.19
4	내(나의)	298	8.37	없다	339	7.63
5	이(관)	267	9.33	사랑	332	9.04
6	나	266	10.28	그(지관)	301	10.32
7	오다	259	11.21	올다	269	11.46
8	사랑	238	12.07	그대	256	12.54
9	눈물	221	12.86	너	238	13.55
10	님	201	13.58	마음	219	14.48
11	없다	190	14.26	사랑하다	214	15.39
12	속(內)	184	14.92	수(의명)	197	16.23
13	밤(夜)	171	15.54	사람	189	17.03
14	그(지관)	161	16.11	오다(동)	184	17.81
15	가슴	153	16.68	당신	178	18.56
16	고향	156	17.24	이(지관)	177	19.32
17	좋다	155	17.80	것	175	20.06
18	저	150	18.33	가슴	163	20.75
19	꿈	143	18.85	잊다	148	21.38
20	그렵다	130	19.31	말다(조동)	144	21.99
21	하다(타)	124	19.76	있다(有)	140	22.58
22	말다(보동)	122	20.20	눈물	139	23.17
23	마음	122	20.63	밤(夜)	134	23.74
24	길(道)	116	21.05	님	126	24.28
25	보다	113	21.45	꿈	110	24.74
26	못(부)	111	21.85	때(시간)	110	25.21
27	부르다(동)	110	22.25	떠나다	109	25.67
28	몸	109	22.64	모르다	109	26.13
29	잊다	106	23.02	우리	108	26.59
30	청춘	105	23.40	길(道)	108	27.05
31	위(上)	93	23.73	알다	105	27.50
32	당신	92	24.06	그렵다	104	27.94
33	님다	89	24.38	않다	102	28.37
34	때	85	24.68	보다(동)	101	28.80
35	달리다	85	24.99	바람(風)	100	29.22
36	것	85	25.29	다시	95	29.63
37	보다(보동)	84	25.60	속	91	30.01
38	달(月)	84	25.90	여자	86	30.38
39	호르다	83	26.19	못하다	86	30.74
40	피다	82	26.49	만나다	86	31.11
41	노래	82	26.78	되다	86	31.47
42	바람(風)	81	27.07	싫다(조형)	86	31.84
43	어서	80	27.36	어디	86	32.20
44	꽃	80	27.65	살다	85	32.56
45	모르다	78	27.93	피다(자)	83	32.91
46	있다	77	28.20	이세	79	33.25

순위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 1996년			
	단어	빈도	누적사용률(%)	빈도	누적사용률(%)	
47	떠나다	77	28.48	떠나가다	76	33.57
48	신다	75	28.75	부르다(타)	76	33.89
49	한(관)	74	29.01	날(day)	73	34.20
50	예	74	29.28	이별	67	34.49
51	어디	74	29.55	저(지관)	66	34.77
52	봄	72	29.80	새월	66	25.05
53	물	72	30.06	하다(조동)	65	35.32
54	너	72	30.32	꽃	64	35.60
55	소리	71	30.57	세상	63	35.86
56	사람	70	30.83	하늘	61	36.12
57	곳	70	31.08	찾다	60	36.38
58	푸르다	69	31.32	기다리다	60	36.63
59	다시	69	31.57	고향	59	36.88
60	우리	68	31.82	지금	58	37.13
61	나다(出)	68	32.06	호르다	58	37.37
62	하늘	67	32.30	주다	57	37.62
63	아가씨	64	32.53	말(言)	57	37.86
64	알다	61	32.75	외롭다	56	38.10
65	년	61	32.97	예	55	38.33
66	바다	60	33.18	못있다	54	38.56
67	올리다	59	33.39	생각	54	38.79
68	웃다	58	33.60	행복	54	39.02
69	이별	57	33.81	하다(타)	54	39.25
70	무엇	56	34.01	모두	54	39.47
71	달빛	56	34.21	모습	53	39.70
72	비(雨)	55	34.41	손	53	39.92
73	못하다	55	34.60	곳	53	40.15
74	다	53	34.79	내다	52	40.37
75	외롭다	52	34.98	아니다	52	40.59
76	구름	52	35.17	남자	51	40.81
77	흘러가다	51	35.35	노래	51	41.02
78	해(日)	51	35.53	혼자	50	41.24
79	오늘	51	35.72	또	50	41.45
80	안(부)	51	35.90	두(two)	50	41.66
81	떠나가다	51	36.08	좋다	50	41.87
82	같다	51	36.26	웃다	50	42.08
83	찾다	49	36.44	비(雨)	49	42.29
84	없이	49	36.62	돌아서다	49	42.50
85	많다	49	36.79	못(부)	49	42.71
86	거리	49	36.97	슬픔	46	42.90
87	세상	48	37.14	많다	46	43.10
88	항구	47	37.31	눈(eye)	46	43.29
89	아래	47	37.48	헤어지다	45	43.48
90	젖다	46	37.64	그날	45	43.68
91	신세	46	37.81	별(star)	44	43.86
92	서럽다	46	37.97	지다(해가-)	44	44.05
93	돌다	46	38.14	잡다	43	44.23
94	그대	46	38.30	줄(의명)	43	44.41
95	주다	45	38.46	거리	43	44.60
96	설움	45	38.63	오늘	43	44.78
97	산	45	38.79	위(up)	43	44.96
98	어이	44	38.94	얼굴	43	45.14

순위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 1996년		
	단 어	빈 도	누적사용률(%)	단 어	빈 도	누적사용률(%)
99	말	43	39.10	올리다	42	45.32
100	그리하다	43	39.25	정(情)	42	45.50
101	아리랑	42	39.40	구름	41	45.67
102	살다	42	39.55	멀리	41	45.85
103	되다	42	39.70	연세	41	46.02
104	누구	42	39.86	첫다	41	46.20
105	고개	42	40.01	불다(바람-)	41	46.37
106	만나다	41	40.15	이렇다	41	46.54
107	뜨다(해가-)	41	40.30	결	40	46.71
108	두	41	40.45	말하다	40	46.88
109	네(너의)	41	40.60	한번	40	47.05
110	옛	40	40.74	한(one)	39	47.22
111	싫다	39	40.88	추억	39	47.38
112	기다리다	39	41.02	그리움	39	47.55
113	저물다	38	41.16	소리	39	47.72
114	잘	38	41.29	지나다	39	47.88
115	붉다	37	41.42	푸르다	39	48.05
116	날	37	41.56	다(all)	39	48.21
117	이내	36	41.69	누구	39	48.38
118	부두	36	41.81	돌아오다	38	48.54
119	한(恨)	35	41.94	두다	38	48.70
120	한숨	35	42.07	흘러가다	38	48.86
121	얼굴	35	42.19	인생	38	49.02
122	안개	35	42.32	슬프다	38	49.18
123	관상	35	42.44	아무	38	49.34
124	하다(보통)	34	42.56	싫다	37	49.50
125	웃음	34	42.69	그렇게	37	49.66
126	헤매다	33	42.80	봄(春)	37	49.82
127	지다(꽃이-)	33	42.92	산(山)	36	49.97
128	이것	33	43.04	남(他人)	36	50.12
129	아득하다	33	43.16	보다(부.비교)	36	50.27
130	믿다	33	43.28	같이	36	50.43
131	등불	33	43.40	정말	36	50.58
132	두다	33	43.52	님다	35	50.73
133	혼자	32	43.63	잘(good)	35	50.88
134	옛날	32	43.75	미련	35	51.02
135	사나이	32	43.86	멀다(거리가-)	35	51.17
136	버리다	32	43.97	보이다	34	51.32
137	딸랑	32	44.09	함께	34	51.46
138	누가	32	44.20	아프다	34	51.61
139	깊다	31	44.32	청춘	33	51.75
140	저렇	30	44.42	네(너의)	33	51.89
141	정(情)	30	44.53	홀로	33	52.03
142	오빠	30	44.64	이름	32	52.16
143	생각	30	44.75	남다	32	52.30
144	보내다	30	44.85	사나이	32	52.43
145	따르다(뒤-)	30	44.96	바다	32	52.57
146	달래다	30	45.07	믿다	32	52.71
147	정말	29	45.17	변하다	32	52.84
148	잡다	29	45.28	아름답다	32	52.98
149	연제나	29	45.38	몸	32	53.11
150	어리다(동)	29	45.49	위하다	31	53.24

순위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 1996년		
	단어	빈도	누적사용률(%)	단어	빈도	누적사용률(%)
151	새다	29	45.59	서울	31	53.38
152	사다	29	45.69	밟다	31	53.51
153	바라보다	29	45.80	달(月)	31	53.64
154	들다(정어-)	29	45.90	모든	30	53.77
155	끝	29	46.00	시간	30	53.89
156	갈매기	29	46.11	걷다(walk)	29	54.02
157	추억	28	46.21	남기다	29	54.14
158	줄(의명)	28	46.31	아가씨	29	54.26
159	정들다	28	46.41	버리다	29	54.39
160	장모님	28	46.51	물(水)	29	54.51
161	얕다	28	46.61	바라보다	29	54.63
162	불	28	46.71	어느	28	54.75
163	물결	28	46.81	하나(one)	28	54.87
164	말다(타동)	28	46.91	일(業)	28	54.99
165	눈(眼)	28	47.01	안(부)	28	55.11
166	편지	27	47.11	그런	28	55.23
167	술	27	47.21	둘(two)	27	55.34
168	수(의명)	27	47.30	날다(fly)	27	55.45
169	새월	27	47.40	때문	27	55.57
170	서울	27	47.50	아직	27	55.68
171	배(船)	27	47.59	앞	27	55.80
172	밀	27	47.69	서로	27	55.91
173	맘	27	47.79	아래	27	56.03
174	노다지	27	47.89	같다	26	56.14
175	길다	27	47.98	누가	26	56.25
176	불다(바람-)	26	48.08	문다(이름을-)	26	56.36
177	모두	26	48.17	서럽다	26	56.47
178	마시다	26	48.26	어머님	26	56.58
179	돈	26	48.36	언제나	26	56.69
180	남다	26	48.45	무엇	26	56.80
181	굿모닝	26	48.54	안녕	26	56.91
182	찾아가다	25	48.63	친구	25	57.02
183	적(의명)	25	48.72	정들다	24	57.12
184	야속하다	25	48.81	쓸쓸하다	24	57.22
185	아니다	25	48.90	그래	24	57.32
186	생각하다	25	48.99	찾아오다	24	57.42
187	별	25	49.08	영원히	24	57.53
188	또	25	49.17	해(日)	24	57.63
189	넘어가다	25	49.26	낙엽	24	57.73
190	내리다	25	49.35	언덕	23	57.83
191	굽다	25	49.44	떠오르다	23	57.92
192	회망	24	49.53	무슨	23	58.02
193	하나	24	49.61	첫사랑	23	58.12
194	집	24	49.70	너무	23	58.22
195	젊다	24	49.78	순간	23	58.31
196	시들다	24	49.87	끝	23	58.41
197	손	24	49.96	작다	22	58.51
198	떠들다	24	50.04	항구	22	58.60
199	땅	24	50.13	굽다	22	58.69
200	남	24	50.21	괴롭다	22	58.79



부 록 II

해방이후부터 1996년도까지 각 시대별(10년 단위) 어휘 양상(100위까지)

시대 순위	해방이후-1960년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1996년까지		
	단어	빈도	사용률 (%)	단어	빈도	사용률 (%)	단어	빈도	사용률 (%)	단어	빈도	사용률 (%)	단어	빈도	사용률 (%)
1	올다	111	2.26	가다	97	1.95	나	105	2.49	나	150	3.43	나	213	4.06
2	가다(去)	110	2.24	그(지관)	90	1.81	내(나의)	78	1.85	내(나의)	114	2.60	내(나의)	115	2.19
3	나	60	1.22	내(나의)	82	1.65	없다	75	1.78	사랑	83	1.90	너	106	2.02
4	내(나의)	55	1.12	없다	81	1.63	그(지관)	71	1.68	그대	65	1.48	그대	100	1.91
5	오다	52	1.06	나	79	1.59	가다	70	1.66	가다(去)	61	1.39	없다	95	1.81
6	부르다(타)	47	0.96	사랑	74	1.49	마음	63	1.50	그(지관)	57	1.30	수(의명)	86	1.64
7	사랑	43	0.88	올다	61	1.23	사랑	55	1.31	당신	57	1.30	것	85	1.62
8	없다	41	0.84	마음	60	1.21	사람	48	1.14	사랑하다	56	1.28	사랑	77	1.47
9	밤(夜)	38	0.78	오다	52	1.05	사랑하다	48	1.14	없다	47	1.07	사랑하다	68	1.30
10	꿈	37	0.75	넘	50	1.01	너	46	1.09	수(의명)	47	1.07	가다(去)	64	1.22
11	피다(자)	37	0.75	이(지관)	45	0.90	말(言)	44	1.04	너	47	1.07	그(지관)	51	0.97
12	길(road)	36	0.73	가슴	42	0.84	당신	43	1.02	사람	47	1.07	당신	46	0.88
13	넘	34	0.69	사람	41	0.80	오다	42	1.00	마음	44	1.00	사람	42	0.80
14	가슴	33	0.67	밤(夜)	36	0.72	올다	38	0.90	잇다	42	0.96	잇다	40	0.76
15	이(지관)	33	0.67	사랑하다	34	0.68	수(의명)	37	0.88	것	38	0.87	여자	39	0.74
16	그(지관)	33	0.67	당신	32	0.64	이(지관)	34	0.81	가슴	38	0.87	마음	38	0.72
17	그렵다	29	0.59	말다(보통)	32	0.64	그대	33	0.78	눈물	36	0.82	말다(보통)	38	0.72
18	노래	28	0.57	말(言)	31	0.62	때(when)	32	0.76	올다	35	0.80	있다	38	0.72
19	고향	27	0.55	그대	31	0.62	것	30	0.71	없다	34	0.78	우리(대)	36	0.69
20	그대	27	0.55	길(road)	30	0.60	있다	29	0.69	우리(대)	33	0.75	살다	35	0.67
21	꽃	27	0.55	그렵다	30	0.60	말다(보통)	28	0.66	이(지관)	33	0.75	알다	34	0.65
22	봄	26	0.53	눈물	29	0.58	잇다	26	0.62	이제	30	0.69	이(지관)	32	0.61
23	눈물	25	0.51	있다	27	0.56	그렵다	25	0.59	있다	30	0.69	가슴	31	0.59
24	푸르다	24	0.49	살다	26	0.52	만나다	24	0.57	바람	30	0.69	이제	31	0.59
25	청춘	24	0.49	잇다	24	0.48	눈물	22	0.52	다시	29	0.66	되다	30	0.57
26	넘다	23	0.47	만나다	24	0.48	꿈	22	0.52	떠나다	29	0.66	않다	30	0.57
27	찾다	22	0.45	수(의명)	23	0.46	모르다	21	0.50	못하다	28	0.64	세상	29	0.55
28	이별	22	0.45	못잇다	22	0.44	길(road)	20	0.47	알다	26	0.59	때(when)	29	0.55
29	속	22	0.45	모르다	21	0.42	피다(자)	20	0.47	보다(見)	26	0.59	싫다(조형)	29	0.55
30	말다(보통)	21	0.43	비(雨)	21	0.42	하대(보통)	20	0.47	모르다	26	0.59	남자	28	0.53
31	너	21	0.43	떠나다	21	0.42	떠나다	20	0.47	여자	25	0.57	보다(동)	28	0.53
32	저(지관)	19	0.39	때(when)	20	0.40	되다	20	0.47	말다(보통)	25	0.57	눈물	27	0.51
33	떠나가다	19	0.39	얼굴	19	0.38	세월	19	0.45	밤(夜)	24	0.55	속	26	0.50
34	산(山)	18	0.37	내리다(자)	19	0.38	가슴	19	0.45	되다	22	0.50	하나(one)	26	0.50
35	많다	17	0.35	않다	18	0.36	않다	19	0.45	떠나가다	20	0.46	모르다	25	0.48
36	못(부)	17	0.35	너	18	0.36	넘	19	0.45	만나다	20	0.46	올다	24	0.46
37	언덕	16	0.33	좋다	18	0.36	기다리다	18	0.43	못잇다	20	0.46	떠나다	24	0.46
38	모르다	16	0.33	속	18	0.36	알다	18	0.43	오다	20	0.46	밤	23	0.44
39	항구	16	0.33	어디	18	0.36	호르다	18	0.43	때(when)	19	0.43	어디	23	0.44
40	보다(見)	16	0.33	피다(자)	18	0.36	속	17	0.40	왜	19	0.43	주다	22	0.42
41	물(水)	16	0.33	사나이	18	0.36	모두	17	0.40	주다	19	0.43	모습	22	0.42
42	같이(부)	16	0.33	꿈	17	0.34	보다(見)	16	0.38	립다	19	0.43	바람(風)	22	0.42
43	잇다	16	0.33	싫다	17	0.34	다시	16	0.38	넘	18	0.41	다시	21	0.40
44	말(言)	16	0.33	못하다	17	0.34	두(rwo)	16	0.38	싫다(조형)	18	0.41	아니다	20	0.38
45	고개(언덕)	16	0.33	올리다(타)	17	0.34	어디	15	0.36	없이(부)	17	0.39	만나다	20	0.38
46	거리(街)	16	0.33	저(지관)	17	0.34	손(手)	15	0.36	말(言)	17	0.39	곳	18	0.34
47	있다(有)	16	0.33	알다	16	0.32	우리	15	0.36	어디	17	0.39	모든	18	0.34
48	손	15	0.31	것	16	0.32	못하다	15	0.36	말하다	17	0.39	보다(비교)	18	0.3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시대 순위	해방이후-1960년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1996년까지		
	단어	빈도	사용률 (%)	단어	빈도	사용률 (%)	단어	빈도	사용률 (%)	단어	빈도	사용률 (%)	단어	빈도	사용률 (%)
49	아가씨	15	0.31	두(two)	15	0.30	외롭다	14	0.33	날(day)	17	0.39	오다	18	0.34
50	위(上)	15	0.31	바람(風)	15	0.30	말하다	14	0.33	이렇다	17	0.39	시간	17	0.32
51	다시	15	0.31	지금	15	0.30	이제	14	0.33	모습	16	0.37	하늘	17	0.32
52	잘(good)	15	0.31	웃다	15	0.30	한(one)	14	0.33	가다리다	16	0.37	모두	17	0.32
53	신다	15	0.31	거리(街)	15	0.30	행복	14	0.33	하다(조동)	16	0.37	누구	16	0.30
54	떠나다	15	0.31	보다(동)	15	0.30	지다(자)	13	0.31	정(情)	16	0.37	더(비교)	15	0.29
55	마음	14	0.29	꽃	14	0.28	고향	13	0.31	생각	15	0.34	그런	15	0.29
56	못하다	14	0.29	그리움	14	0.28	싫다	13	0.31	춤(의명)	15	0.34	떠나가다	15	0.29
57	하늘	14	0.29	다시	14	0.28	꽃	13	0.31	지금	15	0.34	길	15	0.29
58	좋다	13	0.27	외롭다	14	0.28	결	13	0.31	그림다	15	0.34	이별	15	0.29
59	어디	13	0.27	찾다	14	0.28	밤(夜)	13	0.31	돌아서다	15	0.34	행복	14	0.27
60	잡다	13	0.27	고향	14	0.28	날(day)	13	0.31	모두	15	0.34	그렇게	14	0.27
61	불다(타)	13	0.27	혼자	13	0.26	생각	13	0.31	아니다	14	0.32	못하다	14	0.27
62	흐르다	13	0.27	지다(자)	13	0.26	돌아서다	12	0.28	아름답다	14	0.32	또	14	0.27
63	우리	13	0.27	흘러가다	12	0.24	곳	12	0.28	그날	14	0.32	말(言)	14	0.27
64	아래	13	0.27	떠나가다	12	0.24	바람(風)	12	0.28	이별	14	0.32	날(day)	14	0.27
65	소리	13	0.27	또	12	0.24	다(all)	12	0.28	남기다	14	0.32	정말	13	0.25
66	사람	12	0.24	사연	12	0.24	하늘	12	0.28	결	13	0.30	정(情)	13	0.25
67	달(月)	12	0.24	살짜기	12	0.24	있	11	0.26	싫다	13	0.30	슬픔	13	0.25
68	오다(조동)	12	0.24	세월	12	0.24	살다	11	0.26	흐르다	13	0.30	가다리다	13	0.25
69	바다	12	0.24	하나(one)	11	0.22	멀다(형)	11	0.26	미련	13	0.30	남다	13	0.25
70	바람(風)	11	0.22	위(up)	11	0.22	떠나가다	11	0.26	세월	12	0.27	내리다(자)	13	0.25
71	나그네	11	0.22	눈(eye)	11	0.22	눈(eye)	11	0.26	손	12	0.27	세월	13	0.25
72	들리다(자)	11	0.22	젖다	11	0.22	잡다	11	0.26	헤어지다	12	0.27	뽀(의명)	12	0.23
73	알다	11	0.22	하늘	11	0.22	구름	11	0.26	꿈	12	0.27	꿈	12	0.23
74	어머님	11	0.22	날(day)	11	0.22	지금	11	0.26	때문(의명)	12	0.27	잊혀지다	12	0.23
75	싫다	11	0.22	우리	11	0.22	또	11	0.26	한번	12	0.27	혼자	12	0.23
76	즐겁다	11	0.22	이름	11	0.22	날다	10	0.24	추억	12	0.27	위하다	12	0.23
77	비(雨)	10	0.20	부르다(타)	11	0.22	돌아오다	10	0.24	두다	12	0.27	함께	12	0.23
78	날(day)	10	0.20	서울	11	0.22	춤(의명)	10	0.24	정말	12	0.27	찾다	12	0.23
79	멀리	10	0.20	생각	11	0.22	바다	10	0.24	외롭다	11	0.25	결	12	0.23
80	젖다	10	0.20	사내	11	0.22	편지	10	0.24	미안	11	0.25	저(지관)	12	0.23
81	때(when)	10	0.20	아가씨	11	0.22	아니다	10	0.24	슬픔	11	0.25	대로(의명)	11	0.21
82	묻다(타)	10	0.20	오늘	11	0.22	낙엽	10	0.24	보이다	11	0.25	구름	11	0.21
83	서울	10	0.20	같이	11	0.22	멀리	9	0.21	오늘	11	0.25	웃다	11	0.21
84	휘파람	10	0.20	새기다	10	0.20	왜	9	0.21	머물다	11	0.25	이렇다	11	0.21
85	보다(조동)	10	0.20	서로	10	0.20	네(너의)	9	0.21	눈(eye)	11	0.25	인생	11	0.21
86	지다(자)	10	0.20	누구	10	0.20	불다(자)	9	0.21	언제	10	0.23	아직	11	0.21
87	젊다	10	0.20	안녕	10	0.20	일(業)	9	0.21	불다(자)	10	0.23	돌아서다	10	0.19
88	다(all)	10	0.20	순정	10	0.20	한번	9	0.21	멀리	10	0.23	후회	10	0.19
89	물새	9	0.18	상처	10	0.20	슬픔	9	0.21	저(지관)	10	0.23	언제나	10	0.19
90	노래하다	9	0.18	영원	10	0.20	저(지관)	9	0.21	같다	10	0.23	추억	10	0.19
91	웃다	9	0.18	있	10	0.20	인생	9	0.21	혼자	10	0.23	민다	10	0.19
92	맺다	9	0.18	흐르다	10	0.20	위(up)	9	0.21	그런	10	0.23	흘러가다	9	0.17
93	지금	9	0.18	그날	10	0.20	이별	9	0.21	세상	10	0.23	때문	9	0.17
94	주다	9	0.18	돌아오다	10	0.20	정말	9	0.21	슬프다	10	0.23	하지만	9	0.17
95	해(sun)	9	0.18	맺히다	10	0.20	웃다	9	0.21	J	10	0.23	울리다(타)	9	0.17
96	세월	9	0.18	그렇게	10	0.20	민다	9	0.21	부르다	10	0.23	헤어지다	9	0.17
97	향기	9	0.18	달래다	10	0.20	위하다	8	0.19	하나(one)	9	0.21	생각	9	0.17
98	눈(snow)	9	0.18	변하다	10	0.20	혼자	8	0.19	울리다(타)	9	0.21	일(業)	9	0.17
99	여자	9	0.18	여자	10	0.20	버리다	8	0.19	앉다	9	0.21	외롭다	9	0.17
100	그날	9	0.18	둘(two)	9	0.18	헤어지다	8	0.19	걷다(walk)	9	0.21	불다(자)	9	0.17
계		2038	41.57		2255	45.33		2122	50.36		2415	55.15		2762	52.63